

목어

일본의 구석기 戀歌

고고학 발굴 역사상 가장 여처구니 없었던 조작은 '필트다운 인(人)'이었다. 이는 20세기초 영국 서섹스의 필트다운 하상(河床)퇴적지에서 발굴된 머리뼈 조각과 아래턱뼈 조각에 붙인 이름인데, 이 발굴로 자칫 영국이 세계 유일의 인류발상지가 될 뻔 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필트다운인이 인정될 경우 현대인류의 조상이 되는 호모사피엔스 출현을 적어도 2백만년 전으로 잡아야 하며, 이 화석은 지금까지의 발굴 가운데 최고(最古)의 인류화석이 되기 때문이다.

학계는 긴가민가 하면서도 이를 두고 논의를 계속해 왔고, 훨씬 뒤 과학적인 검증 등을 통해 두개골 부분은 구석기 후기의 것으로, 아래턱 부분은 현대를 살고있는 침팬지의 턱을 착색하여 화석처럼 보이게 교묘히 손질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영국인의 빛나던 애국주의가 만들어 낸 억지조작이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았다.

21세기 초, 비슷한 조작이 일본에서 다시 한번 연출되고 있다. 일본 고고학계에서 '신의 손'이라 불리고 있는 고고학자 후지무라 신이치(藤村新一)씨가 3만년 전 정도로 밝혀져 있던 일본의 구석기 인류사를 5만년 전, 60만년 전, 70만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밝히는 과정에서, 발굴지에 미리 마련한 석기들을 사전에 몰래 파묻어 왔다는 것이 탄로난 것이다. 여기에도 긴가민가하는 학계의 의문이 적지않게 제기돼 왔으나 일본 고고학계는 이를 무시해 왔다. 어쩌면 그들에게 감상적 민족주의와 애국주의가 작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민약 마이니치 신문의 몰래카메라가 조작을 밝혀내지 못했더라면 필트다운 일본에서 '필트다운 인'에 버금가는 '일본원인(猿人)'이 탄생했음도 모르는 일이다. 하기가 한국에도 8년 전 남해에 몰래 던져 넣었다 건진 가짜 '거북선 별황자총통(別黃字銃筒)' 소동의 부끄러운 흔적이 없진 않다. 개인적 공명심에 맹목적 애국심의 합작이었다고 할까. 그래도 정도의 문지다. 일본은 이번 일로 공개대담방비의 비문 조작 등 동북아시아 상고사에서부터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역사왜곡을 시도해 왔고 앞으로도 이를 계속할 것이라는 불신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다.

김정자(연문인·본지 논설위원)

불기 2544년 동안거 결제법어

눈 밝은 큰 종사가 어째서 두려워 하는가?

혜 암 조계종 종정

임제의 뱀은 번뇌를 끊고 성품을 밝히요, 덕산의 棒은 마음 밖에서 도를 찾음이다. 들 앞의 잣나무는 사도를 쳐부수고 정법을 널리 펼치요, 개의 佛性이 없음은 바람 불지 않는데 파도가 치도다. 자유로운 선택은 위없는 正印을 깨닫고 曹溪의 정통제자는 화살같이 지옥에 떨어지도다. 눈 밝은 큰 종사가 어째서 두려워하는가? (한참 묵묵한 후에 말하였다) 봄이 오니 자연히 푸르더니 가을이 되니 저절로 누털구나. 산은 청황의 뜻이 없건만 나뭇잎이 스스로 춘추를 알리네.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요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이니 눈 속에서 불이 타고 재 속에서 불을 얻는다. 필경 이 무슨 뜻인가?



소 머리의 夜叉가 겨우 머리를 숙이니 말 얼굴의 육질이 문득 주먹을 드는구나 아 악-

臨濟喝은 斷煩惱性이요, 德山棒은 心外求道로다. 庭前柏樹子是 破邪顯正이요, 狗子佛性無는 無風起浪이로다. 雲水衲子是 覺無上正印하고 曹溪鑿子是 入地獄如箭이로다. 明眼大禪師가 爲什 하야 憐怖리요 (良久) 春來自然靑이요, 秋來自然黃이로다. 山無再靑意나 樹葉自靑黃이로다. 文殊普賢이요, 普賢文殊니 雲裏에 發炎하고 灰中에 得火로다. 畢竟如何오. 牛頭夜叉가 才稽首하니 馬面獄卒이 便擊拳이로다. 喝 一喝

법 전 해인총림 방장

보기에 분명하고 알기에 친숙한데 말로서 들춰내면 여전히 도중에 있다. 아무리 털끝 하나 범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떡을 들고 손가락을 빠는 사람이네. 見得分明識得親이나 擧來猶自涉途程이로다. 直饒不犯毫芒者라도 也是拈餅紙指人이로다.



보 성 조계총림 방장

재물과 여색을 저버리지 못하건든 도를 묻지 말고 내 잘난 생각 가지고는 참선하지 말게 번뇌망상 끊어지면 생사도 끊어지나니 이 밖에 다른 법은 따로 일러줄 게 없네



財色不捨莫問道하고 眞高自是休參禪이라 煩惱斷盡生死斷이라 更無別法與人傳이로다

대중은 정신을 바짝 차리라 터럭 끝만치라도 어긋나면 하늘 땅이 거꾸로 매달릴 것이다.

大眾은 惺惺着하라 毫釐有差면 天地懸隔이로다.

원 담 덕숭총림 방장

무슨 일로 때도 없이 청산에 오르고 이 산중에 백운이 첩첩함이다. 만강으로 흐르는 물이 청천에 떠있을 이어늘 일별이 무시갠데 흘러 오고갈이로다.



何事無時靑山來 白雲巖巖此山中 流水萬江再天乎 一念無始流來去

지 허 태고총림 중앙선원장

앉아서도 참선 다니면서도 참선하더니 추우면 불되고, 곤하면 잠자노라. 고향에 갈길 알지만 말해줄 사람 없으니 달은 소나무 창에 지고 하늘은 방종이로구나. 座也禪兮요 行也禪하니 寒時向火요 困時眠이로다 家山有路나 無人薦하니 月落松窓인데 半夜天이로구나.



열린 문으로 나가지 않고 창에 머리 부딪치는 어리석음이여 백년을 묵은 종이 뚫려 한들 어느 때 머리밖에 나가겠느냐. 空門不肯出하니 投窓也大癡로다 百年盤古紙된들 何時出頭哉리요

정대 총무원장 취임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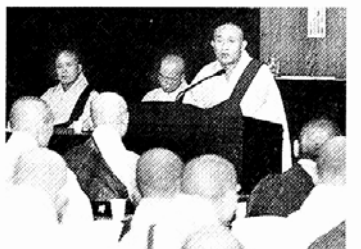
종단안정 '내치 성과'

청사신축-사면 '숙제'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15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정대스님은 이날 조계사 대웅전에서 집행부 부·국장과 재가총무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회를 하는 것으로 1주년 행사를 대신했다.

정대스님 취임 이후 조계종은 일단 안정 기조에 올라섰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정대스님은 지난 해 11월 15일 당선증을 수여받은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화합종단 구현을 위해 물러섬 없이 열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합의 한 방안으로 사면 실시를 제시했다. 지난 3월 사면 실시를 위한 중헌 개정안을 총회에 제출했고, 기 회있을 때마다 사면 실시를 강조했다.

사면 실시는 '별하자 사면 제외'를 명시한 중헌의 규정을 푸는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은 총회에 넘어 와 있다. 정대스님으로서는 '할만큼 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중앙총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정대스님.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이전을 위한 절차도 마무리했다. 1년여 동안 부실공사 보수, 공사비 삭감 문제로 줄다리기를 벌여온 종림과의 협상을 타결했다. 다만, 2002년까지 지급할 공사비 198억원을 무난히 마련할 것인가 과제로 남았다. 내년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를 절약해 38억원을 마련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그러나 흥천사 땅을 매각해 공사비 일부를 마련하려는 계획을 중앙총회에서 제동을 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어려움도 예상된다.

애초 올해 안 착공 예정이었던 총무원 청사 신축은 2002년으로 넘어갔다. 청사 신축에 대해 정대스님은 매우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한국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의 '자존심'으로 표현할 정도이다. 그러나 계획 발표가 있고 난 뒤에도 위원회 구성 등을 늦추고 있어 자칫 일반적인 진행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100억원 가량의 재원 마련도 과제로 남아 있다.

종단 목적사업이었던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이전을 가시화하고, 총무원 청사 신축 계획 등을 차분히 진행시키고 있어 '내치'에는 적지 않은 성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사면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으로 남아 있으며, 남북불교교류, 불교시민단체 지원 등 불교의 사회적 실천을 높이기 위한 발걸음은 아직도 더디다는 평가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색상-모양 제각각 '위상 실추'

조계종 '가사원' 설립추진 까닭

승복은 검소하고 청정한 승가의 위의를 상징하며, 탐심을 버리고 수행에 정진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즉 승복은 수행자를 상징하는 표상인 것이다.

그러나 승복의 상품화로 고가화, 고급화, 패션화되면서 '본소의(黃掃衣)' '단삼의(單三衣)'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 또 시종 승복점이 나 길거리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매입음으로 인해 불교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도 점차 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종단마다 법계에 따라 가사와 장삼의 크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자의 취향과

편의에 따라 승복점에 제작을 의뢰해 입고 있는 실정. 화려한 금란가사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이유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통에 있어서도 승복점에서 임의로 생산하다보니 색상이나 모양, 옷감 등이 천태만상이며, 원단가격이 5~10만원에 불과하지만 승복가격은 수십 만원에서 백만원대에 이르고, 승복시장이 100~500억대의 시장으로 추산될 정도로 커져 승복의 본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여론이 강하다.

승려제는 1990년대 조계종 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1순위로 거론돼 왔다. 1999년 5월 조계종 의제

승복 유통 개선 절실 의제 통일 규정 제정 지정업체 선정 제작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999년 3월 전국교구본사 교무국장회의에서도 승복의 유통구조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승가의 위계와 청정승가 가풍 회복을 위해 승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합의를 이뤄냈다.

이에 따라 조계종 교육원이 추진해온 승복 유통체계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통일된 규정 마련 △가사원 설립 △승복 물러이기

장착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종 가사와 장삼의 제작과 공급, 그리고 위탁 및 지정 승복점을 관리하고 감독할 가사원의 설립 방안이 현실화되고 있다.

조계종의 승가복식 개선 추진안은 의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제에 대한 통일규정 마련, 가사와 장삼을 현대적으로 디자인해 의장등록을 필한 뒤 가사는 종단에서 직접 지급하고, 장삼은 지정업체를 선정하여 제작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안은 승가위계 및 승공확립을 위해 앞으로 4급 이상의 승가고시를 시행한다는 계획에 따라 법계에 맞는 새로운 승복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조계종의 승가복식 유통개선에 대해 조계사 부근의 40여개 승복점들은 원단가, 수공비, 가게 임대료를 합산할 경우 결코 높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訃告

大韓佛敎 觀音宗 第五代 宗正 云工慧雄 大宗師께서 佛紀 2544年 11月 9日(음력 十月 一四日)

午後 6時 15分 天安 普烈寺에서 涅槃하시었기에 茲以 訃告합니다.

佛紀 2544年 11月 9日

◎ 永訣日時 : 佛紀 2544年 11月 13日(月) 午前 10時 30分(宗團葬)

◎ 永訣式場 : 충남 천안시 다가동 444-16 [보열사]

◎ 茶毘場 : 충남 천안시 성거읍 송남리 산 40 보명사 蓮花台 오후 2시

大韓佛敎 觀音宗 第五代 宗正 云工慧雄 大宗師 宗團葬 葬儀委員會 委員長 李 泓 坡

연락처 : 總務院 02) 763-0054 · 3345 / 普烈寺 041) 573-6027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대표전화: 02-737-8881
www.buddhanews.com
www.buddhapia.com
www.mahamall.co.kr
www.yosiamun.com